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참의대신원외 대행스님께 어우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쳐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봉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나 하나 버린다면 불을게 전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세세생생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이는 날은 바로 에너지 창고에 같이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마련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데 있어서 참선방에 가서 참선을 따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구는 그냥 쉼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러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일체가 공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봤다고 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해서 망했다고 하고, 만남도 그렇고 가고 울도 그렇고 모두,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착입니다.

말 하지만 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껍질 이렇게 착이 누진된다 이거죠. 즉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넘치도록 비칠 않는다. 우리에게 닦여오는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인과성 영계성 이 모두가 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착이 없다면 그냥 다 벗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겉껍질 착이 있는데 모두 공했다는 걸 모른다면, 겉껍질 천차만별로 쌓이고 쌓이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공해서 나도 공하고 해도 환이 없구나. 환이 없이 날아다니듯 그냥 살고 있구나. 사는 사이 없이 살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갖는 사이 없이 갖고, 모든 게 그렇구나. 그런 걸 아시고 나 하나 버린다면은 아무 것도 불을게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급한 일을 할 때 내가 했다는 말은 없어도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인간이 살아 나가는 양심의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다는 생각도 또 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도 않았고, 심부름만 할 뿐이지 내내 속의 다보탑이라는 한줄의 자리는 바로 움켜쥐지 않는 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바로 법당이 되고 그 법당안에는 다보탑위에 자들이 계시다. 그 이미 타불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태양과 같고 즉 말하자면 에너지 창고와 같고 빛과 같고 즉 온화하게 안해주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공기와 흙과 모든 게 겹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방편으로 아버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글자를 생각 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렇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자 그러구선 그냥 그냥 텅텅 텅 텅 사세요. 도가 별난게 도가 아니라 텅텅 텅 텅 사세요. 그게 그냥 도입입니다. 된다는 생각, 땅이 짙다는 생각, 뭐 좋은 자리다 이런 것도 아닌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내 앞에 걱정거리가 닦여오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살기가 꼭 쉬운데,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불을게 없는데, 버린다는 생각 없이 버리면 너무나 좋은 것을, 나 하나 버린다면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화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견이 있고 저견 저쟁고 따지고, 내가 한다고 하고 자만을 부리고 내가 잘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따져서 시비를 만드느냐는 얘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너는 약한 일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건 꼭 약한 일을 하고야 맙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 보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약하더라도 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약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다. 이런 틀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자들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벌써 99%가 부처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말입니다. 이 공한 도리와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살 것을, 그럼 왜 편리하냐? 금방 구멍물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구멍물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큰일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금방 맑은 물로 화하게 만들어서 써라 이런 겁니다. 그것 뿐이 아니죠. 일체를 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이 없이 하고 사는 것도 내가 없이 살고 있다 이런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내 생각이 부처와를 아끼게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실 때에 진짜 여러분은, 몸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내가 타고 안타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치의 뜻을 아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바다를 건너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모두 살 양으로 애를 쓰죠. 파도가 치면 파도가 안치게 해달라고 빌고 배가 안 뒤집히게 해달라고 빌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공했다는 도리를 알면은 그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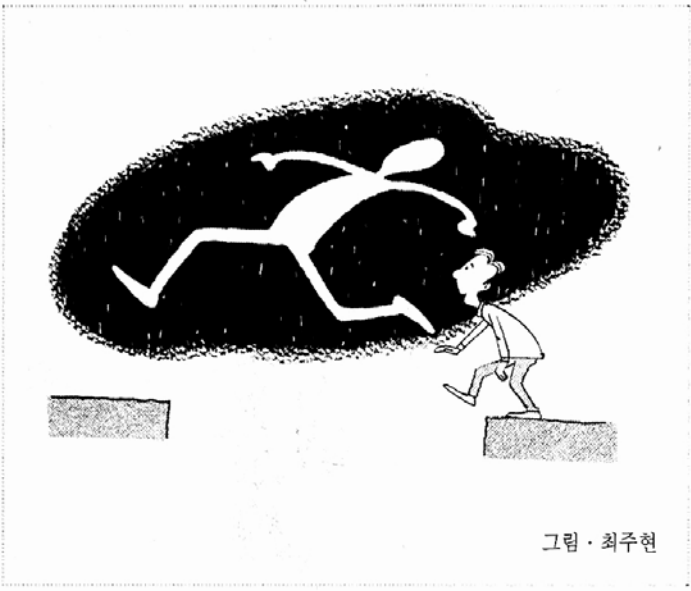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수만명이 깨달아도 부처는 하나 자불을 아는 게 곧 공동리 아는 것

자기는 움켜쥐지 않아도 자기의 선장이 그냥 끌고 간다는 얘이죠. 그래서 만약 다른 후생에 간다 하더라도 1초도 안 걸리고 멀다 가깝다 말도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시면 자부처님들은 그렇게 생각으로서 이 육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살로 화하게 만들어서 전부 승인이 되게 하죠. 그러면 첫째 싸움이 없으니 병이 안걸리죠. 싸움이 없으니 또 화복하죠. 이 몸이 화복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면 가정이 더 편안하죠. 어디 한쪽이 아파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공부로 알고 공한 도리를 안다면 괴로워도 괴로움이 없다는 얘이죠.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는 것이 어디서 왔나 하고 분별하게 아파가지 않고 편안하단 얘이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병도 병이 아니라 그냥 공부죠. 아프지 않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범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가 조금만 아프다 해도 벌써 그냥 사방 팔방으로 이거 죽었다 하곤 아

잘 하면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뭐 있습니까? 한철 살다가 모습을 훨훨 벗고 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한철 살게 되는건데 뭐이 꼭 살아야만 하고 안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도 종자가 있으니까 나를 짓고 종자가 커질 것이고 윤회해지겠죠. 물론 종자가 나뉘지만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꼭 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내가 하는 것도 보고,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계시는 여러분을 다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이듯이 부처님께서도 한데 모이는 날이 있죠. 여러분이 계시면은 다 모일 때가 있죠. 이렇게 모이는 날 부처님은 다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지 않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이든 모이지 않든 부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모든 것이 고정된 게 없죠. 모든 것도 이것 보고 저 보고 보고, 듣고 또 듣는 거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죠. 이거 하고 또 듣거 움켜쥐죠. 이렇게 들어간단 얘입니다. 들어 있는 것 같지만 활나활나입니다. 그러니 항상 누진 컴퓨터에다 맡겨라. 맡겨서 입력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앞에 입력이 잘못된 거를 없애려면 새로운 입력을 해야만 이 앞의 입력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저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사시면서, 지금 모습을 나쁘게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편안하게 가지고 나와서 자유롭게 사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또 일을 할 때 더 원하면 같이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산돼지들을 만났는데 앞다리가 짧아서 허벅거리고 빨리 못뛰니까 잡아먹히고 그러는 걸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낮아서 한생각을 못하니가 진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속에 이 마음의 보살들이 승인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끔 해놓으시구선 나오셨단 말입니다. 가끔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살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살행을 하느냐가 다르죠. 현대과학은 기계가 있어서 하는 거고, 보살은 마음으로 하죠.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금해스님의 여 레 섯 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년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종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 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한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 문 신 청 0523)372-1221 / 011)564-1217

● 대 금 : 35만원
●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감정콩

‘金檀檀花’

“에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열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썰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 더 쓰더라니까!”

우나무와 소나무의 꽃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시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꽃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감정콩을 액체에 담근다. 견과내 따듯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발음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속성 기간이 죽어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지만 꽃진 한 되에 기천만원의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꽃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그림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1.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분규격 : 30×14×14
- 기동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향토마을

왕토마을에서는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향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